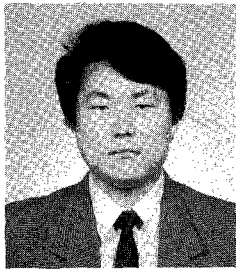


시설자동화의 문제와 개선방안



김 창 수
신동방사료 차장(양계 PM)

'9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각종 축산시설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설 자동화된 영구 무창계사는 40%가 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전문기관에서 시설 자동화에 따른 경영분석을 했고 월간 양계 1996년 9월호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산란계 경영 농가의 시설자동화에 관한 경제적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시설의 자동화와 규모의 대형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시설 자동화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하더라도 길길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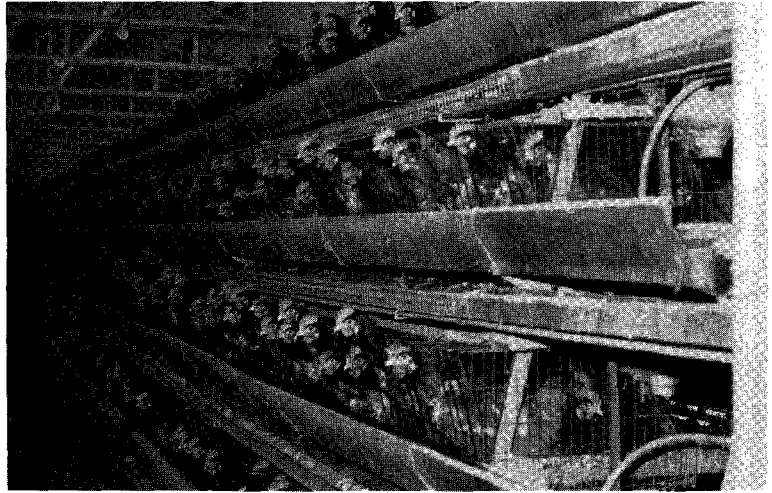
외국의 우수한 자동화 시설을 100% 수용하여 시설하였다 하더라도 계절별 차이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액만으로 판단해서 시설을 하고나서 1년도 되지 않아 후회를 하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 시설을 하려는 농장주는 국내에 설치된 시설자동화된 여러 농장을 두루 둘러보고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계절별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축사건축은 시설의 문제와 환기의 문제,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전문 시공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전문 시공업체라 하더라도 경험과 기술력, 자금력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완성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신중을 기한다. 특히, 계절별 환기시스템과 정전시 적절한 대책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에어백과 같아서 평소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구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게된다.

환기 시스템 선택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한여름만을 생각하여 강제 터널환기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면 겨울철 공기의 속도 때문에 생산성 저하와 호흡기 질병을 유발한다. 또 적절한 단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환기나 크로스 환기만 채택할 경우에는 한여름 밀사로 인한 폐사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사의 가장 중요한 환기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창계사라도 그 이용에 따라 전기료의 차이는 크다. 봄, 가을과 같은 기온에서는 자연 환기개념을 이용하여 전기료를 절약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화된 시스템일수록 인건비는 낮아지는 반면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므로 이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알아야 한다. 실제 한 농가를 방문해 보니 적정한 입기구만 열면 필자의 계산으로는 3대의 웬으로도 충분한데 입기구는 모두 닫혀있



고 웬은 10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1년을 가동하면 전기의 손실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개방계사와 무창계사의 차이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더욱 심하다. 이는 산란계의 온도별 사료섭취량 차이로도 알 수 있으며 간단한 계산으로도 알 수 있다. 겨울철 내부온도가 1℃ 떨어질 때마다 산란계 1수당 하루에 1.25g씩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섭취한다. 이는 30,000수 농장이면 37.5kg으로 kg당 사료가격 250원만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9,375원으로 5℃만 높게 계산온도를 유지해도 하루에 46,875원으로 겨울 3달동안 줄일 수 있는 돈은 4,218,750원이 된다.

케이거나 집란 시설부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시설을 쓴 것으로만 선택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면 파란을 줄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간혹 우리는 우리가 해놓은 시설이 완벽하다는 또는 완벽할 것이라는 착각속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시설이 실제 적합하게 시설되고 그 기계가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단순히 기계가 작동하고 있으니 잘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웬만하면 산란계 계사를 신설하는데 10억단위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 기계나 생산비 등 생산효율 면에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최대의 수익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사의 구조나 단열치, 환기시스템, 기계 등 하우징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생산비가 더 높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양계**